



## www.jungto.org/jts



**표지사진** : 요즘의 인도는 40°C를 육박하는 더운 날씨다. 숨쉬기조차 힘들지만 아이들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 JTS 통권 23호 5·6월

펴낸날 : 2000. 5. 9

펴낸이 : 범 루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윤기희, 김애경, 한갑수, 장옥희  
이수진, 설성봉(부산JTS)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073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8

정토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ungto.org

인터넷 : <http://www.jungto.org/jts>

#### 인도

- 4 인도 등계스와리 소식
- 5 특집 | 인도에서 온 편지

#### 북한

- 7 지금 북한에서는 | 라진·선봉 현지보도  
올해는 더 많은 수확을 내립니다
- 8 특집  
믿을 만한 JTS - 한인봉 (중국JTS책임자)  
통일 - 다른차원의 세계에서 같은 차원의 세계로  
- 구미경 (중국JTS간사)
- 11 결연탐방 인터뷰 열번째 | 죽 향 (대표 정명숙)

#### 청소년

- 14 아름다운 청소년 | NGO와 함께 하는 청소년들

#### 그리고

- 16 세계의 청년들과 함께 하는  
인도체험봉사활동
- 18 후원인의 소리  
인도의 천만마울의 아름다운 한국인을 보고  
- 김희숙  
제이티에스에 드리는 글  
- 왕청피해자 분협회 최미화
- 20 한국제이티에스 후원의 밤
- 21 활동보고 및 안내
- 24 신규 회원 명단
- 25 물품후원 및 후원금 현황
- 26 개인 / 단체 결연현황
- 30 후원프로그램안내 | 이렇게 동참해 주십시오

##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9일 비하르 남쪽에 있는 땀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날 전교생이 학교에 모여 저녁을 해 먹고 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멘트 바닥에서 자면서도 모두들 신이 나서 노래하고 왁자지껄했습니다. 9일날 아침 조례 후 이튿날 달고 밀미약 먹이고 한국에서 온 사탕 한줌씩 쥐어주고 주의 사항 얘기하고... 드디어 출발! 땀에 도착해서 밥 먹고 수영하고 돌아오는 길에 '까끌라'라는 곳에 들러 폭포도 보았습니다.

가는 길에 차가 나무가게를 받아서 2시간 동안 싸우기도 하고 오는 길엔 아이들이 차안에다 똥을 싸서 밀미 냄새, 똥 냄새로 완전히 파김치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1년 중 수학여행을 제일 기다린답니다.

## 밀가루 지원하고 핸드펌프도 설치했어요

지난 3월에 아자드비가, 소라즈비가, 만코시힐, 수자타 유치원의 학생들에게 밀가루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출석율에 따라 5kg, 4kg, 3kg 배분을 해서 총 1700kg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라즈비가'와 '가왈비가'마을에 핸드펌프를 설치했습니다. 두 마을 다 식수 문제가 심각한데 이번에 설치한 펌프로 최악의 상황은 모면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식수의 수급을 원활히 하려면 각 마을에 펌프 3개는 더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수자타아카데미 소식

4월에 중학교 과정 학생 7명이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기숙생들은 1차 4기생들이 됩니다. 5월 1일~9일까지 수자타아카데미 학기말 시험이 있구요. 또 5월 20일~6월 25일까지 37일간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 힌디 웅변대회 개최

지난 4월 22일 동계스와리 지역 10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힌디웅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웅변대회는 마을개발프로젝트팀에서 준비했는데 참가학생, 어머니들, 교사, 상급생해서 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상품으로는 가정에서 필요한 양동이가 주어졌어요. 아이들보다 엄마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피지요.

## 수자타아카데미 방송에 나가요

EBS와 SBS에서 수자타아카데미를 촬영해 갔습니다. 방송은 5월 11일 수요일(부처님오신날) 오후 10시부터 40분 동안 <인도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될 거라고 합니다. SBS는 <출발! 모닝와이드>팀에서 왔었는데 6월말 경에 방송된다고 합니다. 주변분들께 많이 알려주십시오.





## 인도|특|집

5월 24일에 열릴 후원의 밤을 맞이하여 그 동안 사랑을 베풀어주신 후원자님께 인도의 선생님과 학생으로부터 감사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짧은 편지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가슴깊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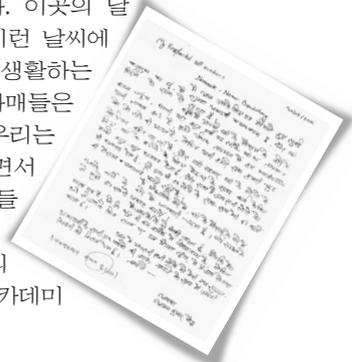


존경하는 모든 후원자 분들께!

나마스떼,(안녕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수자타아카데미의 선생님이요 지난 2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곳의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온도가 약 40°C 정도인데 이런 날씨에 우리 인도인들은 습관이 되었지만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한국인 자매들이 걱정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인 자매들은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물면서 언제나 수자타아카데미를 걱정하시는 모든 한국 후원자들과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날씨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이곳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한국 후원자님들께 수자타아카데미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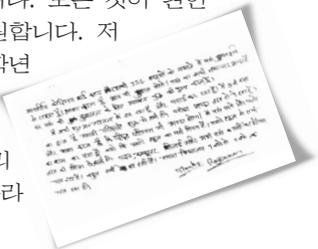
수자타아카데미 교사

이제이 드립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형제 자매들께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부처님께 한국멤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요즘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학년 학생입니다. 곧 시험이 다가옵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우리학교 원칙에 따라서 저는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종류의 공부를 합니다. 컴퓨터, 타이핑, 슈라 마다나 개발운동, 재봉 등.. 요즘 이곳은 여름입니다. 우리학교의 일상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수자타아카데미 8학년

라즈 쿠마르 드립



나마스떼!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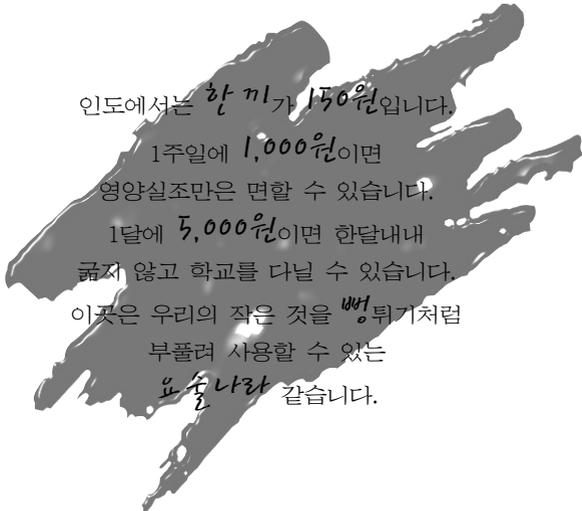
한국의 후원자님들께

저는 수자타아카데미의 학생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기숙사에 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로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회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공부 이외에도 타이핑, 재봉틀, 컴퓨터 등 많은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멤버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여름방학을 맞습니다. 저는 제이티에스 멤버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제이티에스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내 사랑을 어린아이들에게 드립니다.



수자타아카데미 7학년

아르준 쿠마르 드립



인도에서는 한 끼가 150원입니다.

1주일에 1,000원이면

영양실조만은 면할 수 있습니다.

1달에 5,000원이면 한달내내

굶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작은 것을 <sup>우선</sup> 기부처럼

부풀려 사용할 수 있는

요술나라 같습니다.





## 올해는 더 많은 수확을 내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원한 농장에서 제일 수확이 큰 방법은  
비닐을 덮어서 재배하는 피복재배기술로,  
예전보다 8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어 라진·선봉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4개 농장에 전부 피복재배기술로만  
150정보(1정보:3000평)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라진에 들어가려면  
중국 훈춘에서 1시간 가량 들어가는  
권하교두에서 출국수속하고  
다리 건너 북한 원정리 세관에서 입국수속을 합니다.  
원정리에서 산길을 넘어  
하여평, 서슬령을 지나가면 선봉인데  
거기서부터 길옆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 북|한|특|집

후원의 밤을 맞이하여 중국 JTS에 파견되어 라진·선봉의 유치원/탁아소 지원업무 및 중국 조선족 피해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의 글을 최초로 실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맛을 만찬 JTS

한인 봉 (중국JTS 책임자)

97년부터 라진·선봉 어린이 영양품을 생산, 배분하는 일을 맡은 실무자로서 처음으로 글을 쓴다. 처음 시작할 때 북한에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지금은 JTS를 신뢰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협조하고 있다.

북한은 자존심이 무척 강해서 특히 어린이들에게 외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신경을 많이 쓴다. 다른 단체(미국 등)들이 수없이 지원하고 언론에 공개하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다시 북한에 들여놓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던 우리는 '쌀과 옥수수를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은 수준의 질 좋은 것으로 보낸다', '모든 지원사업은 조용히 진행한다'라는 원칙을 정했다.

사실, 그곳 중간관리가 지원물품을 받는 것은 상당히 큰 모험이다.

지원품을 받고, 지원하는 단체에서 언론에 발표하면 그 관리들이 큰 처벌을 받는 것을 보아온 우리는 그 점을 상당히 중시했다. 지원하고도 조용히 지내니 많은 횡수가 거듭되면서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게 되었고, 우리도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지원물품이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 된다는 소문이 잘못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에 대한 지원품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신성한 것이다. 간혹 일부사람들이 지원품을 조금 달라고 해도 "북한정부의 허가 받아오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면 그 말이 쑥 들





## 북|한|특|집

어간다. 한국에서 알고 있는 것 보다 분배는 더욱 투명하다. 그곳 관리들은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은 분유, 설탕, 비료, 농업자재 등이 부산에서 라진에 직접 도착하고 그 물품은 라진항에서 항만사용료도 전부 면제해주며 우리측 실무자들이 항구 보세구역까지 들어갈 수 있게 편의를 도와주고 있다.

사실, 라진·선봉 지원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이곳 중국에서도 많이 벌어진다. 쌀과 옥수수는 연변에서 구입하니 돈 있는 곳에 사기꾼이 달려오듯이 항상 양식구입을 힘들게 한다. 우리는 모든 양식구입을 이렇게 한다.

먼저 국가양식창고에 가서 알맞은 질의 제품을 골라 무게를 확인하고 가격을 흥정하여 견본을 받아온 후, 출국수속을 하고 차량이 정해지면 날짜를 맞춰 다시 양식창고에 가서 양식을 실어 보낸다. 또한 쌀을 싣기 전에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확인한다. 그래야만 중간에서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도 가끔은 속이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은 연변 00지역 양식창고에서 견본을 받아와서 확인 후, 물건을 구입하려 하는데 중간 잠사하는 사람이 견본보다 못한 쌀을 갖다놓고 견본하고 같다고 우기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물건은 구입할 수 없다고 하고 그쪽은 같은 물건인데 왜 그러냐고 하고 옥신각신하다 쌀푸대를 던져가면서 싸우고 해서 결국은 견본과 같은 물건을 보냈다. 그래서 항상 양식은 직접 검사하고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이제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 않는다.

라진에 들어가는 물건은 도착 후 라진측에서 1포대씩 저울에 계량한다. 어떤 경우는 30톤 가져가면 200~300Kg이 모자랄 때가 있다고 하나 JTS는 한번도 모자란 적이 없다고 라진 당국에서 이제는 우리 물건은 계량하지 않는다.

법륜스님(이사장)께서는 항상 강조하신다. 후원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속 후원하는 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나타해서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큰 죄악이라고. 우리 실무자들은 물건 구입, 운반, 생산, 배분이 정확히 되도록 항상 긴장하며 신경쓰고 있다.

## 통일-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같은 차원의 세계로

<구미 경/중국 JTS 간사>

나는 북한지원을 위하여 중국에 파견된 활동가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중국 조선족들이 라진에 다니면서 무역이나 지원을 하고 있다. 라진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북한 사람들이 애를 먹인다고 욕을 할 때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세 관에서는 항상 무엇인가 달라고 요구한다, 말을 함부로 하고 질차가 까다롭다





## 북|한|특|집

는 등 여러 가지 불평을 하면서 심지어 망해야한다는 말까지 할 때는 우리가 같은 민족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아직 직접적으로 부딪혀보지 않아서인지 이제 이런 말을 3년 동안 듣다보니 기분이 상한다기보다 이제는 북한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다.

작년에 서울 갔을 때 명동 거리모금에 참여했는데 중국 가기 전에 모금하러 다녔을 때와 시각이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모금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까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모금액 보다 한사람,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원에 대한 의견, 북한에 대한 생각들이 궁금했다.

모금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라가며 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대부분 부담스러워하고 얼른 모금함에 돈이나 넣고 가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응을 보였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우리는 직접지원 한다”는 설명에 “그럼 아이들 입에까지 넣어줍니까?”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이다.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지원품이 정말 아이들에게 가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말을 들으니 ‘보여주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배분하는 영양품 전부가 완전하게 아이들 입으로 들어간다고는 장담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에게 간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전체 유치원, 탁아소의 80%는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나눠주고 있고 군사지역 같은 출입이 불가능한 곳 20%정도는 공급소에 쥘서 나눠주게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체계상 영양식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기 어렵다. 우리가 나눠주는 영양식의 품질에 대하여는 기술감독국에서 검사를 하고 배분에 대한 점검을 안전부, 교육국, 공급소 세군데에서 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점서상 어린이에 대하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여주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다.

라진 당국에서 우리 사업에는 호의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사진이나 정보가 유출될까 항상 신경 쓴다. 그쪽에서 생각하는 정보라는 것이 정보의 범람시대에 사는 우리의 사고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로 본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비해 북한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편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라진·선봉 지원사업을 한지 3년이 되었고 그 동안 유치원, 탁아소지원 외에 농장지원사업 등도 하면서 끊이지 않는 지원과 성실히 일하는 점등을 라진 당국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온성, 청진 등 다른 지역까지 지원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것은 후원자들의 끊임없는 후원과 관심 덕분으로 가능하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 한사람의 큰 뜻으로 아름다워지는 세상 <죽향 粥鄉>을 만나서...



정명숙 (죽향대표)

죽향을 위한 이행시

죽: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건  
향: 향이 자신의 몸을 사르는 것과 같다

■ 현재 총 지원액 : 육백이만오천원 (6,025,000원)

Q) 먼저 <죽향>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A) 죽향은 죽 '죽' 고향 '향', 그래서 죽의 마을, 죽의 고향이라는 저희 가게의 이름이에요.

Q) 1999년 1월 30일부터 현재 선봉지역의 '적지분장 탁아소'의 85명의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꾸준히 지원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해서 결연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는지요.

A) 아주 오래 전 부터 내가 식당이나 뭔가를 하면 우리가 버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태일씨의 책을 보면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이티에스를 알게 되어서 그전부터 갖고 있었던 마음을 이쪽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했죠.

Q) 특히 북한어린이와 결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A) 특별한 계기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정토회에 다니면서 북한사정에 대해 듣고 어쨌든 굶어죽는다는데, 세대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의 일부를 떼서라도 도와보자 한거죠.

Q) 보통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있어서 모금을 하여 보내 주시는데 <죽향>은 어떻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는지...

A) 저희는 특별히 가게에다 모금함을 놓고 모금하지는 않아요.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익금의 일부를 떼어서 내 놓는 거죠. 이 이익금이라는 것이 우리가게에 오는 사람들의 밥값에서 다 떼는 거고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인건비나 내 인건비나 이런 것에서 다 내 마음대로 떼어서 보내는 거니까 난 그게 더 큰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없는 사람이 만원 내는 것이 있는 사람이 백만원 내는 것 보다 더 크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죠.



Q) 지금까지 1년 넘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요?

A) 어쨌든 나는 먹고살고 있고, 잘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어떤 경우도 북한의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들보다 나오니까 거기에 비하면 별로 어려운 건 없었어요.

Q) 그러면 지원하시면서 보람되거나 감동적인 일이 있었다면요?

A) 처음엔 이름을 내지 않고 그냥 후원금만 보내다가 한군데 지정을 해서 결연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가게를 오시는 많은 사람들의 훈돈을 모아서 하는거라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 혹시라도 알게되면 어쨌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특히 손님들께 '개인적으로 결연을 좀 하세요, 1인당 5만원씩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홍보비의 일부분을 좀 쓰세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한 성사된 예로 '삼암기획'의 사장님이 식사하러 오셨다가 가실 때 내가 오후에 찾아가겠다고 하고 갔어요. 제이티에스 결연 상황표를 갖고 가서 보여드렸는데 '아, 죽향 너무 많이 하는거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200명 지원본 100만원, 그러니까 라진과 선봉에 각 한 군데씩 결연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아, 가능하구나' 하는걸 느껴서 참 기뻐했어요. 내가 굳이 이름이 내는 것이 특별히 좋을 건 없지만 개인이 가게를 하면서도 결연후원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된 것 같아 좋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 할 때도 오히려 내 이름을 안 내고 했었다면 얘기하면서 신뢰를 줄 수 없었을텐데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본보기도 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Q) 앞으로 어떻게 계속 결연후원을 계속하실 건지요?

A) 지금처럼 할거구요, 어쨌든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더 해야 할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여기저기다 많이 얘기해서 웃도 많이 모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은 결연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제 연배 친구들이 다 회사에 다니고 직급도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회사에서 한군데씩만 결연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일차적으로 그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조금 내가 시간이 더 나면 그냥 아무회사나 홍보실에 직접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홍보비의 일부를 결연후원금으로 하면 결연단체로 회사이름이 나가니까 그것도 홍보효과로 좋지 않겠냐,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해보라'고 얘기할 생각이예요.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시간 조금씩 내서 일주일에 한군데씩만 가봐도 되는거니까.

Q) 주변에 참 많이 알려주셔서 의류나 기타 여러 가지를 모아오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세요.

A) 내가 결연후원 하는 것만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나도 그 동안 제이티에스를 몰라서 후원 못했었고 누굴 도와야 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돕는 과정에 대한 불신이 깊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사람들은 못하는 것 같



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이티에스를 얘기할 때 제일 사람들에게 강조하는게 '돈이 새지 않는다. 여기 실무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도 마음놓고 내도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것은 거기서 직접 애들한테 급식을 하고 지원을 하는 상태라고 얘기했을때 사람들의 반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돈을 보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던가 크게 뽕뽕그러서 그렇게 쓰인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낱알이 직접적으로 간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제일 큰 것 같아요.

Q) 후원해 주시면서 제이티에스에 바라는게 있다면요?

A) 그냥 고맙죠 뭐. 내가 내는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하고 싶어도 불신사회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직접 그 아이들을 만나서 주지 않는 이상 못 할 건데 제이티에스라는 단체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고맙고 정말 좋아요. 한가지 있다면 표면에 보여지는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후원인을 같은 후원인으로서 존중하는 정신이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Q) 끝으로 후원을 하시면서 자신이 삶이나 생활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요?

A) 변화는 많죠. 구체적으로 남을 도우면서 재미있고 즐거운 것 같아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짬을 내서 무언가를 조금 했을 때,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까 즐거워서 그렇게 조금씩 하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내가 산에 다니는걸 너무 좋아하는데 가게 7년 하는 동안 산에 다닌 것을 다 합해도 옛날 산에 많이 다닐 때 1년 다닌 것 보다 적어요. 지금은 어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가게에 있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내가 너무 돈에 매여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활력이 있는 것은 어쨌든 내가 이 가게에서 돈버는 일만 하지 않고 틈틈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뭔가를 한다는 것, 그게 굉장히 큰 거죠.

한사람이 마음을 낸다는 것, 뜻을 세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주변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가슴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축항 : 02) 2265-1058 / 서울 을지로 백병원 맞은편





# NGO와 함께하는 청소년들

학교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사회단체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수업시간을 활용해서  
 취미나 재능을 살리는 것에서 나아가 체험학습 시간을  
 시민단체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전문성 있는 단체들과 학교,  
 학생들이 어우러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현상이다.  
 제이티에스도 인도어린이들과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참가했던 학생들의 소감문을 통해서 수업시간을 함께 해 본다.

##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북한반 조대여고 2학년 송호영

2학년 들어 처음 있는 봉사활동이었다. 웬지 가슴이 설레었다. 여느 봉사활동과 좀 다르다는 게 이유가 아닌가 싶다. 내가 앞으로 해야할 그리고 내가 속한 봉사활동 반은 '북한반'이다. 즉 북한 동포들을 돕는 봉사활동 반이다. 처음 봉사활동 반을 결정할 때 나는 주저 없이 '북한반'을 택했다. 그저 무작정 점수만 따기 위해, 봉사활동 시간만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고 내가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와 한 핏줄이면서 남남처럼 살아가는 북한의 우리 동포, 그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파 오던 참에 나에게 이렇게 그들을 도울 기회가 온 것이다.

관련된 비디오를 보고 나서 모금활동을 하기 위한 홍보 판넬과 모금함을 만들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우리 동포를 도울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일까? 하고 있는 활동이 오히려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지금까지 내가 억지로 해오고 어쩔 수 없이 해왔던 봉사활동에서 느껴 보지 못한 것이었다. 다음에는 북한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하기 전에 우선 그들을 왜 도와야 하는지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번 활동은 나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봉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언젠가 우리들의 이런 마음이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닿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오길 바란다.



## 제이티에스를 다녀와서

인천 구산중 환경봉사체험반 3학년 이혜민



통일을 지금 당장 이루기에는 벅차고 힘들다.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생활도 그러기엔 좀 이쁜 거 같다. 하지만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북한과 남한은 다른 민족이 아니다. 우리의 민족이다. 게다가 지금 북한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

## 모금봉사를 하면서

모현중학교 3학년 이혜리

처음엔 자신을 갖고 있었다. 모두 해줄거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 남한 아이들을 돕지 않고 왜 북한 어린이를 돕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모금을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고 하기 힘들었다. 조금밖에 모으진 못했지만 내가 뭔가 했다는 생각에 기뻐다.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해서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고 자신있게 하지 않아서 아쉬웠다. 앞으로 변화될 것 같은 점은 북한 어린이들을 우리 손으로 더욱 더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 봉사사전교육을 받고

인일여고 2학년 전주리



비디오를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사실 나도 봉사를 살아가면서 하고 싶었고, 그것의 초점은 해외, 아프리카나 중동, 남미였다. 그런데 바로 나의 핏줄인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 너무 죄책감이 들었다. 그리고 꼭 내가 도와주어야 하며, 해야만 할 사명감마저 들었다.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 의지를 더 굳게 다질 수 있었다. 앞으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겠다. 아무래도 관심이 있어야 도와주고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무관심했을 때와 관심 있을 때의 차이는 클 것이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낸 1000원이 한사람의 7일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NGO는 Nun Government Organization의 약자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합니다.



제2차 JTS 국제워크캠프

세계의 청년들과 함께 하는

# 인도 체험봉사활동

2000. 7. 3 ~ 7. 12

사랑의 징검다리

인도 오지에서 펼쳐지는 10일간의 국제봉사활동!  
세계의 청년들과 함께 어우러져 노동을 통해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인도체험 자원봉사활동의 뜻깊은 장이 될 것입니다.  
해외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가슴 뜨거운 청년, 대학생들은 오십시오.  
여기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6 Join Together Society



국제 기아·질병·문맹해제 민간기구  
**한국제이티에스**  
Join Together Society Korea



## 사랑의 징집기

인도 오지에서 펼쳐지는 11일간의 국제봉사활동!  
 세계의 청년들과 함께 어우러져 노동을 통해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인도체험 자원봉사활동의  
 뜻깊은 장이 될 것입니다.  
 해외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가슴 뜨거운 청년,  
 대학생들은 오십시오.  
 여기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캠프기간 : 2000년 7월 2일 (일) ~ 7월 12일 (수) - 10박 11일
2. 봉사지역 : 인도 비하르주 가야시 보드가야 근교 동게스와리(Dhongeshwari) 수자타아카데미 일대
3. 모집인원 : 한국 70명, 인도 100명, 기타국가(미국, 일본, 태국, 네팔 등) 30명, 총 200명
4. 모집대상 : 해외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세계의 청년, 대학생 누구나
5. 활동내용 :
  - 아픈이에게 치료를 - 의료봉사
  -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흙집짓기, 처마고치기
  - 동네 꼬마들의 예쁜 유치원 짓기
  - 나무 한 그루, 희망 한 그루 - 망고나무 심기
  - 세계 청년들의 한마당 - 문화교류의 시간
6. 소요경비 : 참가비 3만원 (사전 숙박교육비, 통신비, 기념품 등)  
 항공료, 수속비 (비자, 여권, 예방접종)-본인부담 (약 80만원)  
 현지 숙박, 체류비 - JTS 부담
7. 접수기간 : 2000년 4월 1일 ~ 5월 31일
8. 접수방법 : 메일로 다운 받은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또는 홍보전단에 부착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낸 후 아래 은행구조로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086-21-0626-011 (예금주: 이지현)
9. 접수/문의 : (사)한국제이티에스 국제 워크 캠프 담당자  
 이수진 간사(azadi@jungto.org)  
 전화)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 jts@jungto.org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137-073)

전화 주시면 국제워크캠프 홍보전단과 제이티에스 홍보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7, 8년 전 문경에서다. 이 무의미한 삶의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더라고 느꼈을 때 문경의 깨달음의 장을 찾았다. 바위에 걸터앉아 만났던 자연의 소리와 사람들과의 만남도 좋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끼니때마다 남다른 반찬들이 올라와 속으로 감탄을 자아냈던 것이다. 마지막날이던가, 그 때 이덕아씨는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하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만들까 오직 그 고민만을 했노라.”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얘기하는 그 말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생각이다.

삶이란 대체 어떤 빛깔인가. 빨리 빨리 쉽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성취해야지만 만족하는 우리들 대부분의 삶과 오이 속을 파내고 그 속에 고기와 지단을 부쳐 잘게 썰어 푹푹 밀어 넣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내는 삶의 차이. 어찌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엄청난 차이다. 그 삶

이 모여 그 사람의 향기를 발산하지 않는가.

그로부터 얼마 후 인도에서 이덕아씨를 만났다. 우리가 인도를 찾은 것은 94년 겨울. 네이란자라강을 맨발로 건너 천민마을을 여러 곳 거치면서 전정각산 아래 동게스와리를 갔었다. 그들의 삶은 너무도 비참했었다. 흙벽 안에서 머리는 산발을 하고 신발은 애초부터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머리를 굽적이며 누더기 옷을 걸치고, 지나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던 힘없는 눈빛. 다리가 다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 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런 곳에 수자타 아카데미는 회색빛 벽들을 그대로 드러낸 채 1층만 덩그러니 있고 운동장가에 펌프와 화장실이 인상적이었다. 그나마 조금 말쑥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누군가 그들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았다. 아니 그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란 곧 내 삶을 일깨우고 가꾸는 일이 되리라. 그렇지만 누가 쉽지 않은 그 길을 갈 것인가.

그 후 4년여 동안 절을 짓고, 인도를 잇고, 사람을 잇고, 부처님을 떠나 보내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 기르고, 또 아이 낳을 준비를 하는 동안 문득 '인도 천민마을의 아름다운 한국인'을 만났다. 감동적이었다. 그 삶이 눈부셨다. 이덕아씨는 그렇게 불쑥 앞서 걸으며 손짓하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의 사고가 어떻게 변모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돌아보고 보듬고 하는 일은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일인가. 누구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는 없다. 이덕아씨, 이덕아씨와 함께 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일군 삶의 흔적이 동게스와리를 탄 세상으로 만들

## '인도 천민마을의 아름다운 한국인'을 보고

- 김희숙



고 있었다. 평생을 다른 삶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질병과 가난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인식하게만 하더라도 성공인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만을 떼는 일인지 모르지만....

정말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부끄럽다. 내 밤그릇 빼앗기지 않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2층짜리 수자타 아카데미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 마음을 다독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낫다고, 모두가 앞서 나가는 힘든 것 아닌가, 앞서가는 이가 있으면 그를 쉬게 하고 그를 힘나게 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소수의 선구자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지지자가 되어 주자고.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나도 그 작은 물방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JTS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께서 성심껏 보내주신 조화금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까지 피해받은 해외동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일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을때 선생님들께서 친히 보내주신 조화금을 손에 받아쥐니 뜨거운 혈육의 정에 다시한번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집은 1993년도에 돈을 사기당한후 빚재촉에 집을 빼앗기고 죽음의 변두리에서 몸부림 치고 있을때 한국 서로돕기 운동위원회에서 우리들에게 삶의 용기와 힘을 주었고 광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JTS 선생님들까지도 피해받은 우리동포들을 위해 실제행동으로 돕는다는 것은 실로 조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찌 단지 돈으로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민족의 사랑, 우리민족의 정신이 숨배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이 뜨거운 마음과 진정은 우리 피해자들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 있음으로하여 우리는 더없는 사랑과 자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피해를 받아 막심한 경제난을 당하고 있지만 선생님들과 같은분들이 지지와 성원이 안받침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신심과 희망으로 충만됩니다.

앞으로 꼭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여 어린 자식을 공부를 잘시켜 우리민족을 위해 영예를 떨치는 것으로 이런 훌륭한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굳게굳게 맹세합니다. 끝으로 JTS 선생님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뜻대로 소원성취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 제이티에스에 드리는 글

- 양창피해자 분협회 최미화



북한과 제3세계 어린이 돕기  
**한국제이티에스 후원의 밤**

2000년 5월 24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



인도와 북한, 제3세계 어린이의 기아와 질병과 문맹을 퇴치하고자  
모든 것을 쏟아 넣었던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그 동안 끊임없이 고통받는 어린이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주신 후원자님들과 함께

앞으로 제이티에스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서로를 살려나가는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 ●수자타아카데미 TV 방영

EBS방송국에서 4월 22일~28일까지 수자타아카데미 인도 현지 촬영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현재의 변화된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방송일 : EBS(CH13) 5월 11일 (부처님 오신날)**

오후 10:00~10:40 **‘인도로 가는길’**

※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나눌수록 기뻐지는 시간입니다.

### ●슈레스 교장선생님, 서울대 어학원에 등록

수자타아카데미의 슈레스 교장선생님이 2년간의 연수기간동안 한국어 연수를 받기 위해 서울대 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6월부터 학교에 다닐 예정인데 슈레스 선생님과 한국말로 얘기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인도현지 파견 실무자 ‘정정임’씨 일시 귀국

인도에서 1년간 활동하신 정정임씨가 5월 3일 일시 귀국하였습니다. 약 1달 정도 머물며 활동 보고 및 그 동안 약해진 건강을 되찾고 더 다양한 정보를 익힌뒤 다시 현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노고에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시라는 격려로 마음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국제협력단 법륜 이사장님 강의

3월29일 국제협력단 대회의실에서 NGO대표자 초청강연으로 법륜스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40여명의 협력단 직원, NGO실무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2일 오후 5시 협력단 신입 실무자 교육으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 북한지원 사업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제이티에스가 남북협력 기금으로 통일부에 8억원을 신청하여, 4월 12일 5억 4천만원의 지원결정을 받았습니다. 분야별로는 유치원 탁아소 영양식 공급사업에 3억원, 농업개발지원사업에 2억 4천만원이 정부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기금으로 설탕 80톤, 분유 50톤, 비료 700톤, 비닐 12톤을 구입하여 북한에 보내려고 합니다.

### ●농업지원

선봉군 부포농장을 (면적 150정보) 지원하기 위한 1차 농업지원품 비료 72톤과(인산30톤, 요소42톤) 비닐 9톤이 4월 12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4월 18일에 농장에 전달했습니다. 옥수수 종자와 영양토, 모판살초제 등은 중국을 통



해서 지원했습니다. 통일부 기금지원 결정에 따라 추가로 온성에 1200정보 라진에 400정보에 대하여 농업 지원을 하기로 복측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 북한 농업지원을 위한 비료 선적식 가져



금년도 북한 농업지원을 위한 농업자재 중 비료 730톤의 선적식을 5월 9일 오후 4시에 여수항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선적한 비료는 요소비료 440톤과 인산 290톤으로 2억 5천만원 어치이며 <LUHAI 184호>에 실려 5월 11일 라진에 도착하면 북한의 10개 농장 2천 정보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제이티에스 이사장 법륜스님과 후원인들은 우리가 보낸 비료가 북한의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 ●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

그 동안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가동이 몇시간 밖에 안되던 영양식 가공 공장이 전기 공급이 원활해져 정상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선적 예정 분이었던 영양식 원재료 15톤(설탕8톤, 분유7톤)이 여수항에서 비료와 함께 출항했습니다. 또한 청진에 있는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생 2258명과 경로원, 장애시설등에 쌀이나 건빵 등 식량과 의류, 이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청소년 사업

### ● 상담교육 심화과정 진행

'서로를 알아가는 상담교육 심화과정'이 지난해 있었던 기초과정에 이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어서 난승법사님, 덕생법사님, 이명륜 선생님을 모시고 불교상담이론과 실제, 집단상담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청소년 활동

구산중학교, 모현중학교, 인일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자원봉사 사전교육이 4월중에 있었습니다. 4월 2일에 있었던 한·미·일 공동모금 캠페인 활동에 청소년 26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모금활동을 펼쳐 주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청소년봉사센터에서는 9개월 과정으로 인도반·북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5월 모금활동

### ● 북한 어린이들과 함께 보낸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은 서울랜드 분수대 앞에서 북녘어린이이 돕기 모금행사를 했습니다. 구산중, 인일여고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 모금활동을 통한 생명나누기

5월 7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펼쳐졌던 제등행렬행사때는 모현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모금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제이티에스 전 실무자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동참한 이날은 인도에서 가져온 물품도 판매하였습니다. 이날 모금된 전액은 북한과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잘 쓰여질 것입니다.

기타 해외 지원

● 몽골 긴급구호

4월 25일, 유례없는 한파로 가축이 60%이상이 죽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지역에 긴급구호로 밀가루 36톤을 보냈습니다. 부산항을 출발한 이 밀가루는 중국을 거쳐 5월 15일 쯤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4월 24일 오후 3시에 제일제당 부산공장에서 간단한 선적행사를 가졌습니다.



● 에디오피아 구호활동

아프리카의 동북부지역이 심한 가뭄으로 기근이 악화되어 1,600만명이 기근에 고통을 받고있어 구체적인 구호활동을 모색하기위해 2명의 실무자를 5월 8일 에디오피아로 파견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모잠비크, 케냐 등의 아프리카 재난의 실태조사와 향후활동 계획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국제부

● ASEM(아시아유럽정상회담)3차 회의 참가준비

ASEM(아시아유럽정상회담)3차 회의가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그와 함께 열리는 아시아-유럽의 민간단체포럼도 준비되고 있다. 아시아-유럽의 시민단체들이 문화, 정치, 경제, 종교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연대와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제이티에스는 “빈곤과 개발” 분과에 참여하기로 하고 준비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 일본국제회의 참가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아리가도 재단의 <세계 어린이 Network 국제회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0년 3월8일~5월 5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 서울 및 기타지역

### 인도후원

- 111-02416-14 송정호
- 111-02413-14 김영란
- 111-02415-14 옥경수
- 111-02423-14 옥경수(동명이인)
- 111-02414-14 이석순
- 111-02417-14 백숙진
- 111-02418-14 서영숙
- 111-02424-14 신세권
- 111-02419-14 강원정

### 북한어린이 결연

- 211-01886-11 하준철
- 211-01887-11 지영민
- 211-01888-11 이성민
- 211-01889-11 응진스님
- 211-01890-11 김종인
- 211-01891-11 조영곤
- 211-01892-11 주덕자
- 211-01893-11 문희정
- 211-01894-11 이주희
- 211-01895-11 김도현
- 211-01897-11 이대훈 이화선
- 211-01898-11 황준호
- 211-01899-11 김건식
- 211-01900-11 김동일
- 211-01901-11 최종근
- 211-01915-11 박영희
- 211-01903-11 신맹선
- 211-01904-11 유혜영 유지원
- 211-01905-11 김장숙
- 211-01906-11 오진
- 211-01907-11 김귀숙
- 211-01908-11 박명운
- 211-01909-11 방정숙
- 211-01910-11 김재웅 김현정 김세희

- 211-01911-11 김석준 이해선
- 211-01912-11 한선희
- 211-01913-11 채창원
- 211-01941-11 김재중
- 211-01942-11 한정각심
- 211-01943-11 권혜진
- 211-01944-11 심상보
- 211-01946-11 이대준
- 211-01947-11 박현숙
- 211-01948-11 황범주
- 211-01949-11 염경숙
- 211-01950-11 성낙표
- 211-01951-11 조철현
- 211-01958-11 임옥영
- 211-01952-11 한영선
- 211-01959-11 김미정
- 211-01953-11 허귀순
- 211-01954-11 정진경
- 211-01957-11 정수정
- 211-01945-11 임송택
- 211-01956-11 유인자
- 211-01960-11 배덕호
- 211-01962-11 강희설
- 211-01964-11 소홍섭
- 211-01965-11 민인홍
- 211-01966-11 김호영
- 211-01967-11 신정순
- 211-01963-11 여수진
- 211-01961-11 김상범
- 211-01968-11 신동민
- 211-01969-11 이건희
- 211-01970-11 이병철
- 211-01971-11 하익준
- 211-01972-11 최지연
- 211-01973-11 박경진
- 211-01974-11 박성미 박상준
- 211-01975-11 강숙영
- 211-01987-11 백영자



# 물품후원 및 후원금 현황



■ 인도 / 북한지원사업에 후원에 주신 사항입니다.

- 211-01976-11 김인숙
- 211-01977-11 장필례
- 211-01978-11 박진환
- 211-01979-11 김형민 김금숙
- 211-01980-11 장하주
- 211-01981-11 전문환
- 211-01982-11 김지영
- 211-01983-11 왕미정
- 211-01985-11 황정혜
- 211-01986-11 도정목스님
- 211-01984-11 손유미
- 211-01989-11 이은경 이새찬

- 212-00156-11 성산초등 2-9
- 212-00157-11 상암기획(주)
- 212-00158-11 (주)오리엔스유니온
- 212-00159-11 김기철
- 212-00160-11 대학노조통일위원회
- 212-00161-11 성산초등학교

## 물품후원자 명단

- 김재성(상암기획) -의류
- 녹색교통운동본부 -문구류(노트 1박스)
- 윤영근(한국센서테크) - 컴퓨터 1대

## 부산

### 인도후원

- 111-02427-14 김경연
- 111-02420-14 나희옥
- 111-02422-14 신영미
- 111-02425-11 하경희
- 111-02426-14 송복희

### 북한어린이 결연

- 211-01916-11 류재홍
- 211-01917-11 이창희
- 211-01955-11 방종선
- 211-01988-11 정광화

## 단체결연

- 212-00153-11 서울보증보험  
남대문지점
- 212-00154-11 광명옥
- 212-00155-11 정의정

## 인도사업 지원금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 송복희 20만원
- 이상현 20만원
- 정정국 20만원
- 이영희 20만원
- 유순호 5백만원

## 북한사업 지원금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 윤철현 5백만원
- 이두원 1백만원
- 문공덕행(일본교포) 1백만원
- 심명관, 심명석 3만원
- 문연옥 3만원
- 익명 30만원
- 일본한청련 국제 Festival 모금액 5,290부
- 한청련 최양자 500부
- 한·일 공동모금 14,724부

## 기타

- 후원인의 밤 후원금 : 최우택 3백만원
- 이순근 1백만원





#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2000년 5월 5일 현재



# 라진·안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년 5월 5일 현재





#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2000년 5월 5일 현재



# 라진·업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년 5월 5일 현재



# 후원 프로그램

## 단체결연 후원

북한 어린이의 영양 실조 회복을 위한 영양식과 인도 어린이의 영양 실조 극복을 위한 점심 제공

- 한 어린이에게 매일 한끼씩 제공되는 음식값은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매월 10만원 이상을 후원하시는 단체나 후원인께서는 라진-선봉 지역의 탁아소나 유치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북녘어린이를 살리는  
결연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 금 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지로번호 : 6921361  
국민은행 086-01-0339-246

## 기업협찬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이티에스와 공동 캠페인 또는 단체 내 기금모금 프로그램입니다. 물품을 직접 지원하실 경우 실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이티에스에 기부금을 납부하신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법인세법시행령 42조 1항 1호 타목, 시행규칙 17조 1항(종전 17조 50호), 부칙(1996.3.21) 7조에 의거, 개인의 경우도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연말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후원접수  
02)5810-581, 5878-995

## 정기 거리모금 행사

9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명동거리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거리 모금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아진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 물품후원

지난해 연말경 몇군데의 기업에서 아이들을 위한 문구류와 의류, 의약품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북한과 인도의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을 기증받습니다.

의약품 : 구충제, 지사제, 안연고, 피부연고, 영양제

문구류 :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연필, 펜 등

그 외 : 옷, 양말, 신발, 장난감 등

## 시간을 후원하시는 자원봉사 활동

-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보다 보람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 학교, 학년·학급, 개인별로 신청 받아 직접 교육 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시는 주부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익한 봉사활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작은정성 큰사랑 캠페인: 모금활동
- 매월 우편물 발송작업
- 워드작업, 인터넷 작업
- 후원가족에게 전화방문 등에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인도현지 파견 자원봉사자 모집 (의사, 간호사, 건축, 농사, 유치원교사 등)

